



위에서 십십치
않게 들리고 있
다. 「약」 하면
보약을 연상하
게 되고, 먹으면
최소한도 안먹

은 것보다는 좋
은 것이란 인상들을 가지고 있다. 마
술의 거리 거리마다 약방이 있어서 사
탕한게 사먹는 것 만큼이나 손쉽게 약
을 사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
실들이 약이 즉 『독(毒)』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사와 약사들의
관점으로 볼 때엔 얼마나 소름끼치도
록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모든 약
물에게는 인체에 이로운 약리작용도
있는 반면 반드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부작용도 있는 법이다. 아무리
사소한 부작용이라도 누적되고 침착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가공할만한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 1946년도 부터
세상에 널리 사용되어진 페니실린은
그 초기에는 부작용이 없다가 1956년
도부터 별별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
하여 즉각적인 쇼크로 손도 써보기전
에 사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 수
많은 의사와 환자들을 당황하게 만

● 1000자 상식 ●

욕구 불만으로
생기는 맹장염

얼마전까지만해도 저 의사는 맹장수
술을 잘한다고 하던 명의(名醫)의 칭호
를 얻은 것과 같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사들은 외과기술의 진보에 따라 맹장
절제수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항생물질의 등장으로 이병은 위험하지
도 않은 병속에 포함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도 외과적 치료를 하지 않
으면 안되는 내과질환중 발병률이 가장
높은 병이 맹장염이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는 맹장염은 외과의(外科醫)의
전문직이라는 말도 있다.

이처럼 잘 알려 진 병이면서도 그 원
인은 아직 확실치가 않다. 맹장염은 맹
장그자체가 아니고 맹장끝부분에 있는

들었다. 이러한 약의 부작용을 의원
병(醫原病)이라 하여 최근에 중요한
문젯점으로 대두되었고 이병의 진단
이 곤란하여 여간 능숙한 의사가 아
니면 힘들게 되었다. 각가지 식품첨
가물이나 진자 보약으로서 흔히들 부
용하는 종합비타민까지도 부작용을
일으켜 두두러기, 다형참출성홍반(多
型滲出性紅斑), 알레르기성혈관염(血
管炎), 자반증 등을 일으키는 판국이

왜 염증이 생기는가.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장이나 몸속의 세균이 충수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세균에 의하지 않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맹장염의 유인(誘因)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특음복식이나 과로가 충수를 느려지게 만들어 세균의 활동을 쉽게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최근에는 맹장염의 발병에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고 본다. 이 주장에 따르면 복음복식 30%, 과로 38%, 기타 32%의 맹장염유인 전부에 대하여 발병전의 심리상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는 심인성(心因性)이 있는 것이 50%나 되었다. 이러한 심리 상태의 내용에 관하여 심각한 감정은 비교적 적고 오히려 작업이나 직장의 긴장상태에 있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니 외국에서 종합비타민류 까지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복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의권신장(醫權伸張)이라는 생각을 떠나 국민건강을 위해 심각하게 거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기생충박멸협회의 청탁으로 인한 이 글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기생충이 여타 세균보다 고등의 진화된 생물이므로 기생충약은 일반적으로 다른 항생제나 기타 약물보

육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이나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 이러한 육구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여 의식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결국은 무의식적으로 마음가운데 숨어 버린다. 그러나 억압된 육구는 그대로 있어 지는 것이 아니라 활화산처럼 언젠가는 의식의 표면으로 튀어 나오려는 에베르기를 가지고 있다. 이 에베르기를 정신분석에서는 심적(心的)에베르기라 한다.

마음밑바닥에 숨어있던 육구가 표면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면 그 에베르기가 역류하여 신체의 여러 부분에 전환(轉換) 또는 기관언어(器管言語)의 반응을 일으킨다. 말로서 나타낼 수 없는 마음의 콤플렉스를 신체의 기관이 대신 나타내는 것은 기관언어라고 하는데 이에 히스테리성 손발마비, 경련, 심장이나 위장증상이 있다. 기관언어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곧 회복되나 때로는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질적변화를 일으키는 수도 있다.

다 더 인간에게 독성이 클 수 있으며 기생충검사등으로 감염여부를 확진하지도 않고 짐작만으로 약을 복용한다든지 더우기 투약식으로 일년에 몇차례 약을 복용한다는 방법등은 당장은 편리한 방법일론지는 모르지만 꼭 시정되어야할 위험천만한 방법인 것이다. 약의 독성으로 인한 예기치않은 의원병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필자=연세의대 피부과 교수·의학박사〉